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다시 전하다

Retelling the *Christmas Story*
By John W. Schoenheit

개발한 전설

오래, 오래 된 낫 익은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이러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해산할 날이 임박하여 나사렛 마을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 밤에 그 마을에 여관 방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으므로, 요셉과 마리아 그들 단 둘이서 외로히 그 근처에 있는 마굿간으로 들어가, 거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 아기를 구유, 짐승 먹이 주는 쉼 에 눕혀 놓았습니다.

위에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한 부분에 그려놓은 그림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냉정하고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로 그림을 그려 줍니다. 어느 세대이든지 간에 대부분 사람들이 해산이 임박한 여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 열인을 제쳐놓고 도와 주는데, 어찌된 일인지 베들레헴 사람들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방이 없다고 냉정히 문닫아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의 그림을 정말로 이렇게 그려 줄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야기에서 즐거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 인들에게 숨겨져 있는데, 진실한 그리스도 인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 인들이 알고있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경 외에 꾸며낸 것과 전설을 복음에다가 수입해 들여서 만든 이야기 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공문서로 작성되어 이미 그리스도 인들 시대 약 삼세기에 널리 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공문서를 학사들이 내용은 *Protevangelium of James* - 야고보의 프로토 어벤 꺄리엄 이라고 하며, 주후 약 삼세기에 기록되었습니다.² 이 *Protevangelium* - 프로토 어벤 꺄리엄 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직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학자들이 작성한 첫 공문인데, 거기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기 전에 굴속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슬프게도, 옛적 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성경에 대하여 사람들이 짚어낸 이야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내용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 밤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한 이 내용이 전설로 현상되는 동안에 이 *Protevangelium* - 프로토 어벤 꺄리엄 이 된 이야기의 어느면에서 얼마나 크게 역할 하였는지 우리는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있는 것은 전설적인 믿음이 그리스도인 문화 중앙 에 쉽게 인정되어 유럽에 퍼져서, 그곳에 낯이 생활하는 것이 Palestin - 팔라스타인 (동남 아시아인)들 생활과는 꽤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들라헴에 도착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부분 영어로 된 성경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라헴에 도착한지 몇일 후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는 정확한 날을 볼수 없습니다.

Luke 2:6 (KJV)

And so it was, that, while they were there, the days were accomplished that she should be delivered.

누가복음 2:6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킹제임스 번역에 days 복수)이 차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야기에서
즐거운 그림을 보게 될 것이며
이 사실이 많은 그리스도 인들에게 숨겨져 있는데,
전설한 그리스도 인들: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윗 구절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그 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 몇일 전에 도착한 것이 확실합니다. 마리아가 [그녀와 요셉이]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라고 했고, "날"을 킹제임스 번역에 "days -복수 몇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신약 성경에서 단어 "days-몇일"라는 복수를 사용했을 때 그 뜻은 항상 단어 그대로 "days-몇일"을 의미하거나 혹은 어느정도 세월이 지난 것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하는 날 도착했을 것 같으면, 본문에 "day-홀수, 그날"이라고 했거나 혹은 "hours-몇시간"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했지 "days-몇일"이라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학사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 C. H. Lenski 분이 기록하시기를: "예수님의 출생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날이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학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알려진 전설과 노래와 그림들로 내려온 전통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일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면, 어째서 그들이 마땅한 숙소를 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넣어 놓았을까요? 아~아, 그리고보니 성경에서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고 그 말은 - 전설입니다. 만일 베들레헴에 손님들로 가득 차서 아무도 요셉과 마리아를 받아 드리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친족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었으며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그곳을 "in the hill country of Judah-산중에 유다 한동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리로 갔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실은, 마리아가 임신 했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0).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마음 편하게 그집으로 가서 얼마든지 보호를 받을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연을 다시 바로 잡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날 밤의 사연을 다시 배워서 그 사연을 다시 바로 잡아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은 진실한 사연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때 일어난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적인 사연에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 도와주며,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참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게 방이 없다고 냉정하게 문닫아 버렸다는 이야기 보다는 사실로 일어난 크리스마스 이야기 사연에서 구원의 연기를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무렵에 진실로 일어난 광경을 확실히 알려면 그리스 성서 본문 과 동남아시아의 고적 문화에 있는 사실들을 주서 모아야 됩니다 (이 고적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얼마전까지만해도 현존하고 있었습니다). 번번히 그리스어 성서에서만 성경적 사실을 평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성서만 가지고는 성경에서 일어난 광경들의 사실을 다 표현할수 없는

단순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고 그 세대에 보통 있는 것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들, 정상인 것들, 혹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절차,” 이러한 것들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 아들이 전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했으므로 몇 달동안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을 기록할 때 “매일 같이 병원으로 운전하고 갔다 온다”고 하는 말을 “내가 병원을 자동차로 가는데, 그차가 큰 쇠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굴러갈 수 있는 바퀴에다가 가스엔진이 있는데 열쇠로 그 엔진 시동을 걸어서 의자 받침에 받판을 밟으면, (등등)”이라고 절대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참으로 웃기는 일입니다. 왜요? 오늘날 우리 문화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내가 병원에 운전하고 갔다” 하면 그이상 설명이 없어도 내가 무슨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후에 문화가 변경되어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오직 역사 학자 몇분들만 알수 있게 된다면 그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겠지만 지금은 기사들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그 문화에서 흔히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면 그 세대 역사 문화를 공부하여 그 시절에 보통 하는 생활 문화를 우리에게 남겨놓은 여러 본문과 교학을 배워서 그 조각을 성경에 맞춰야 온전한 사연을 알수 있습니다. 어느 문화 이든지 여러 문화를 공부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어 본문 성서와 성경적으로 그 시절의 문화를 따라서 기록한것을 조사해본 결과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마 다윗 족속들 중에서 한 가족이 자기 집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한 것을 볼수있게 됩니다. 비록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에는 대부분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이라고 했고 한글 성경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라고 했지만 이 어구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해석도 잘못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집에서 기꺼히 맞이해 드렸다

영어로 번역이 잘못된 단어 “room-방”과 “inn-사관”을 조사해 보기전에, 잘못된 번역외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거주할 곳을 찾을수 있었을 것이라는 근거들을 좀 찾아 봅시다. 첫째는 요셉이 자기의 본적지 마을에 온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서는 무척 긴 역사적인 족보를 기억하며, 자기들의 족속 보호심이 무척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자기가 벤자민 지파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3:5), 그 벤자민 지파가 바울이 출생하기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히브리문화에 자기 족파를 오랜 세월을 두고 기억함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이 베들레헴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가정에서 서로 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고있는 친척들을 이미 인사방문 하고난 후에 있을곳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에대한 사연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위에서 말한 것들이 사실일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해 줍니다.

둘째로는, 한사람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둘 다 “가문이 높은” 사람들인 것은, 두사람 다 가문이 높은 다윗의 손에서 낳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곳 성 이름을 “다윗의 동네”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4). 이렇게 유명한 족속의 명예 하나 만으로도 뜻이 깊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얼마든지 맞이해 들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서 직행으로 내려온 부부를 접대 한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어느때 문화이든지 간에 해산이 임박한 여인들 에게는 특별한 도움을 주는데, 베들레헴 마을도 이와 다른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성경 학사님 Kenneth Bailey-케넬 베일리분이, 동남아시아에서 평생을 지내면서 이집트(애굽)와 Lebanon-레베난에 있는 Universities-대학원

에서 가르쳤는데, Palestine-팔라스탄 마을 사람들의 생활 마음씨를 옹기 깨닫고 하신 말씀이 해산이 임박한 요셉과 마리아를 절대로 막대 할 수가 없다고 단언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베들레헴이 이렇게도 존경심이 없었겠습니까? 실로 그 마을에 요셉을 도와야 한다 하는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마리아에게 필요한 합당한 곳을 마련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더구나 다윗의 손인데 다윗의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말할수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사연을 합당히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한날 밤에 Inn -사관 (여관)에 “방이 없음” 이라는 싸인을 붙여놓고 방이 다 차서 못들어온다고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보다, 그들을 여는 평민이 자기네 가정집으로 데려다가, 그 가족의 안방을 내주고 거기서 있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뜻을 증명합니다.

그때 손님 방에 자리가 없었습니다

올바르게 번역하고 옹기 깨달음으로 예수님 낳을때 어떠한 사연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같이 조사해 봅시다.

누가복음 2:7

[마리아가] 만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영어로 문단 “no room for them in the inn-여관에 있을 방이 없음이러라”가 잘못된 번역인데 이 틀린 번역이 크리스도의 출생사연을 계속 오해 하게끔 보충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합당히 풀이를 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topos*-토포스, 이단어를 모든번역에 대부분 “room-방”이라고 번역했고, 또 하나는 *kataluma*-캐토루마 인데, 이 대목에서 이 단어를 대부분 모든 영어 번역에 “inn-여관”이라고 번역 되어 있습니다. *topos*-토포스 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구십번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있는 호텔 방 혹은 침대방 “a room-하나에 방”을 의미한것이 아니고, 어떤 곳 혹은 주어진 곳에 자리를 의미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치 호텔방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있을 “곳 혹은 자리”가 없다고 한것입니다 [한글성경에는 “곳”이라고 이 단어를 옹기 번역 했습니다만 단어 “사관”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inn-여관 혹은 사관”이 아니고 [어떠한 관을 말하는 것이 아님], *kataluma*-캐토루마를 말합니다. 그러면 *kataluma*-캐토루마 가 무엇일까요? 기록된 복음성서 안에 집집마다 “자고갈수 있는 곳” 혹은 “손님방, 객실”이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데 이것이 영업용이 아닙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있을 곳이 없었던 이유는 손님방 (객실)이 이미 다 차서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어 사전 - Bauer 'Greek - English Lexicon 에서도 알아볼만 하지만, 만일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리스어로 “inn-사관”을 의미했다면, 누가복음 다른데서 사용 했듯이 여기서도 *Topos*-토포스 보다 훨씬 더 나은 다른 그리스말을 사용 했을것이 분명합니다.

“inn-여관”을 정상적인 그리스말로 *pandocheion*-팬도키안 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회에서 안면없는 여객인들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caravansary-캐레벤세어리, khan-카한, inn-사관; 같은 말들은 우리말로로는 호텔, 여인숙,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pandocheion*-팬도키안 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인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 Arabic-아라빅, 아메리칸, Coptic-콕틱, 그리고 Turkish-튀크 사람들도 이 단어를 빌려서 “inn-여관” 혹은 영업적으로 숙박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음

니다. 누가복음에에서 나오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의 사면을 보면 “주막”을 그리스어로 *pandocheion*-펜도키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0:34).

영업적인 여관 (*pandocheion*-페도키안)과는 다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군데 다 *kataluma*-캐토루마라고 했는데 이말은 언제까지나 가정집에 있는 “손님방, 객실”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4:14; 누가복음 22:11).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회 잠수실 곳을 찾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얼절을 먹을 나의 객실 [*kataluma*-캐토루마]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고 (누가복음 22:11).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객실을 *kataluma*-캐토루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가정집에 있는 손님방을 의미하지 *inn*-여관 이나 혹은 호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또 *kataluma*-캐토루마를 동사로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동사로 사용할때는 *kataluo*-캐토루오라고 하고, 뜻은 “쉬고가는, 혹은 자고가는”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장 삭게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접대할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라고 한 말이 [*kataluo*-캐토루오]라고 성경에서 말 하는데 그의 뜻은 예수님께서 삭게오네 집에 있는 객실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9:7). 이러한 식으로 누가복음에서 *kataluma*-캐토루마를 명사로 *kataluo*-캐토루오를 동사로 해서 둘다 가정집에있는 객실을 의미했습니다. 사실은 “*inn*-여관”을 의미하려면 *pandocheion*-펜도키안을 사용하는 것이 *kataluma*-캐토루마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인것은, 누가 “*inn*-여관”을 *pandocheion*-펜도키안 이라고 사용하고, 그리고 객실을 *kataluma*-캐토루마라고 사용 함으로써 누가는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를 영접한 그 집의 “객실에” “있을곳이 없음이러라”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므로 성경에 사관-*inn*에 있을곳이 없음이러라고 번역했을 것이 아니라, “객실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there was no space for them in the guestroom*”라고 번역했어야 됩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 *Young's Literal Translation of the Bible* 이라는 사전을 내놓은 Robert Young-로버트 영 이라는 분이 쓴 주목할만한 노-트가 있는데 이분이 또 *Young's Concordance to the Bible*도 내 놓았으며, 그분의 누가복음 2장 7절에 대한 노-트가 이러 합니다: “...*there was not for them a place in the guest-chamber-객실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성경적 기록에 한가지가 모자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왜 객실들이 찻있는가 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지만, 여기에 두가지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우리 성경 조사 교육사에서 조직된 “Spirit & Truth Fellowship”에서 생각 하는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아마 첫 Tishri-티수리 인데, [Tishri-티수리라는 말이 영한 사전에는 없고 영어사전에는 있는데 그 뜻은 ecclesiastical-성직자의직적으로 는 일곱째 달이고, 유대인들의 개방된 달력으로는 첫째 달인데 (출애굽기 12:2), 오늘날 9월이나 10월경을 말합니다] 아마 이때쯤에 이미 많은 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 가능한 것은, 이 때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종교 교적 대명절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Tishri-티수리라는 달에 (보통 우리달력으로 9월달로 칩니다) (Tishri-티수리 1일) Feast of Trumpets-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성회이고, (Tishri-티수리 10일), 초막절 (Tishri-티수리 15-22), 이러한 명절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왕 예루살렘에 온 김에 이 명절에 참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셉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가이사의 호적 때문이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해주며 (누가복음 2:1-4), 요셉 외에 다른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호적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명절도 참석할겸 해서 같은때에 도착해서 분뻗다는 것도 가능한 근거입니다.

동남아시아 생활에 공동된 하나의 특징

예수님의 탄생때 일을 깨달으려면 또 우리가 먼저 첫세기때 팔레스타인들이 어떻게 살았

던 보통 생활과 그들의 보통 집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한가지 중요한 점은 그때 당시에 중동 아시아 집들이 거의 다 손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객실이 있었고, 나그네도 가고 가는것이 공통된 일이었습니다. 중 동양 생활에는 항상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것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며 성경때의 풍습에 대한 여러 책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기록에 서도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을 몇군데서 볼수 있는데, 롯의 기록을 포함해서 (창세기19:1-4), 기브아에 사는 노인 (사사기19:19-21), 그리고 수님여인, 그녀가 엘리사만을 위해서 객실을 지어 대접한 것(열왕기하 4:10),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 인도자들에게도 공통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2). 그때 당시에는 비록 가난한 집에도 객실이 있었던 것은 그 객실에 가구가 필요 없었고 혹은 화장실과 샤워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보통 침대에서 자지 안했지만, 여행하는 자들이 밤에 덥고 잘 이불을 가지고 다녔으므로, 잠자리 마련해주는 것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세기 때 살았던 보통 팔라스타인-Palestinians 집들은 테이블과 의자들을 사용하지 안했으며, 화장실은 절그릇통-오장을 사용했거나 혹은 대, 소변을 밖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객실들이 작은 방이었고, 변방이었으며, 지붕과 들레 벽들만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이 안방과 막혀서 손님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주인 가족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방 한칸 집들이 보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세기 당시에 보통 동네 집들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 현대 집같이 방이 많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온가족이 방 한칸 집에서 사는 것이 보통 있었으며, 그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의 행사가 다 진행됩니다. 밤에는 바닥에 자리와 이불을 깔고 다들 자고 아침에는 그것들을 다 치웁니다.

또 한가지를 알아할점은 그때 당시에 동부 사람들은 밤에는 그들의 가족들 (예를 들어서, 당나귀 나 혹은 짐승 몇마리)을 안으로 드려 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가족들이 무척 값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누가 훔쳐가지 못하고 다치지 않게 집 안으로 드려옴으로 보호했습니다. 물론 양치는 자들은 한 양떼를 집 안으로 드려오지 않지만, 그의 가족중에 누구 하나를 세우거나 혹은 누구를 사서 그 양떼를 벌판에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집들은 가족이 사는 곳은 바닥을 높게하고 가족들이 있는 곳은 조금 낮게 해서 진 집들이 보통 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누가복음 2장 6절을 깨달을수 있고 예수님을 마굿간에서 낳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유에 눕혀 놓았는데, 이것이 길쭉한 통, 아니면 작진 통이거나 혹은 상자모양같은 통인데, 거기다 짐승먹이를 주면 짐승이 쉽게 먹을 수 있는 통입니다. 우리세대, 서양이나 동양에서는 구유를 마굿간이나 오양간에다 두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구유에 눕어 놓았으면 물론 그를 마굿간이나 혹은 오양간에서 난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옛 동부 사회때는, 낮에는 짐승을 밖에다 내놓고 밤에는 집 안으로 들여 왔으며, 구유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동부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으니 “이는” 객실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 말을 읽으면, 예수님을 어떤 가정 집 객실에 자리가 없으므로 그들의 안방, 곧 온 가족과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낳으므로, 그 가족들이 아기를 눕히기에 꼭 알맞는 구유를 깨끗이 닦아서 그안에 깨끗한 짐을 깔고 그 위에다 안전하게 눕혀서 보호해 놓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수 있습니다. 이렇게한 것은 그를 천대해서가 아니라 그를 보호 하기 위한것입니다. 구유가 탄탄하고 깊은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랑 거리드라도 아기에게 찬바람도 스치지않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었습니다.

참 크리스마스 사연을 깨달을수있게 도와주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동부 지방의 손님 접대 습니다. 동부 지방에서는 손님 대접을 특별하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나친 행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과 두 나그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쟁

단들에게 자기 딸을 내어줄 망정 자기집에 들어온 손님을 포기하지 안했습니다 (창세기 19:3). 이와같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객실에 이미 들어온 손님을 내어보내고 그들에게 줄수가 없었지만, 그대신 자기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사하고, 그 부부를 너그럽게 자기네 안방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를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낳을 때 마리아와 요셉 단 둘이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집 주인 여자뿐만 아니라 객실에 있는 여자들이 그들과함께 하고 아마 그마을 아기받는 여인, 산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경험있는 그 마을 여인들이 와서, 마리아가 진통할 때 요셉과 그집에 남자들은 다 밖으로 내어 보냈을 것입니다 (실은, 남자들이 자칭해서 나갔을 것임은 이것이 그때당시에 그들의 문화에 공통된 상식이었습니다). 그 집 남편과 아들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밤 늦게까지 다른 가족들 집에서 있었거나 혹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때까지 한적한 자리를 내주기 위하여 별빛아래서 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기를 낳고난 다음에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정돈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편하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정상적인 환경에서 낳았을 것이고, 마리아가 그의 주위에 있는 여자들의 도움과, 간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기받는 여인과 다른 여자들이 마리아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지 안했어도, 그들이 거기에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안했다는 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아기낳을 때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기낳는 것이 일상 생활의 하나에 “보통” 일이고, 팔라스타인 사람들은 누가 그 마을에서 아기를 낳을 때 흔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나 다 편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그 집 여자가 돕지 안했다면, 그것이 비정상한 일이었므로 (몹시냉정한 일이었으므로) 아마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모려고 온 양치기들이 그 아기가 하나님인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를 찾았을때에, 만약에 그들이 외로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마구간에 있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을것 같으면, 분개하고 격분해서, 당장에 자기네 집으로 데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새가족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나가서 온 마을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다닌 것은,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가 안전하게 잘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사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하실 때 진짜로 어떠한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배운 크리스마스 사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참 사연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매우 냉정하므로 임신한 젊은 여인이 첫아기를 해산하기에 임박한 것을 보고도 특별히 보살펴 주지 않고 돌려 내보내고 문닫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연은 마리아가 해산하기 몇일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 사는 어떤 가정집에서 받아드렸는데, 아마 그들의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객실, 곧 kataluma-케토루마에 손님이 가득차서, 거기에 그들이 있을 자리 (topos-토포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집 주인이 은혜스럽게 자기네 안방에다가 자리를 내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거기서 영접해서, 자기네 한 가족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진통이 시작되니까, 그집에있는 남자들은 자기네 안방을 마리아를 위해서 내어주고 다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집 여자들은, 그 마을 아기받는 (산파)여인과 함께 마리아 곁에서 위로와 간호로 마리아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후, 얼마가 지난후, 한 늦은 오후경(해진후)에거나 혹은 밤에 마리아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낳으므로, 요셉과 그집 모든 남자들도 잤던 아기를 보기 위해서 모두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또 거기에 굉장한 생기와 야단 범석이 일어났을 것이 편 한 것은 특히 남자 아기를 낳은 데다가 더구나 첫 남자 아기이면은 그때의 전통에는 그 마을에 큰 정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지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에게 헌신적 예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swa

ddling clothes - 강보로 쌓서 놓여놓기 꼭 알맞는 곳, 그 가족이 살고있는 안방에 있는 구유, 물론 그 것을 깨끗이 닦아서 그안에다가 깨끗한 집을 잘 깔고 그 위에다 놓혀 놓았습니다. 그리고이 남자 아기를 낳았다는 소문이 틀림없이 온 마을에 퍼졌을것이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은 물론이며 (음악 소리와 기뻐서 지르는 소리들이 합동 되었을 것이며), 그리고 산모와 아기가 무사히 잘 있는데, 얼마후에 다른 종류의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근처 벌판에서 양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큰 빛이 그들의 둘레에 비취더니, 큰 무리의 천사들이 언덕바지에 즐비하게 있고, 한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더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이 그 지방 곳 곳 마다 큰 감탄을 주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해서, 예수님을 낳은 사연이 참크리스마스의 원심을 증명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과 마음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와 주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By John W. Schoenheit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

